



즉시 배포용: 2020년 9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및 그 이후 근로자 훈련 및 기업가 지원을 위해  
1,800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 시행 발표**

*연방 보조금은 뉴욕 주민들에게 수요가 있는 일자리 취업 훈련, 기업가 지원,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을 위한 교육 기회 기금에 사용 예정*

*뉴욕은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8개 주 중 한 곳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 획득*

*뉴욕주 인력 개발 인식 주간의 일환으로 자금 지원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인력 개발 인식 주간](#)(Workforce Development Awareness Week)을 맞아 뉴욕주가 수요가 존재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을 교육하고 기업을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연방 자금 1,8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조, 경제 안정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은 전국 8개 주 중의 한 곳이며, 가장 많은 지원금을 획득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반드시 이로 인한 경제 문제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은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뉴욕 주민이 교육을 통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쟁하여 성공을 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노동 인력은 우리 경제의 기반입니다. 저는 이 기금이 교육과 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 전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개인과 중소기업을 모두 지원하여 더욱 나은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이 교육을 이용하여 팬데믹에 대응 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술을 얻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인력 개발 이니셔티브는 뉴욕 주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취업 지원을 더욱 포괄적으로 진행하여 여성, 청소년 및 기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성공을 위한 기술을 갖춘다면 우리가 더욱 나은 방식으로 현명하고 강하게 미래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인력 개발청(Office of Workforce Development),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ESD), 뉴욕의 10개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뉴욕 시립 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등과 협력하여 뉴욕의 지속적인 경제 회복 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연방 자금을 제공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술, 물류, 첨단 제조 등 신흥 성장 산업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을 개발하고 기업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뉴욕의 다각적 접근에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1) 최고 피해지역인 뉴욕시의 교육:** 최악의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중 한 곳인 뉴욕시에서 CUNY 시스템은 주민들이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최첨단 물류/공급망, 디지털 마케팅 및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이 일자리 수요가 높은 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지원할 것입니다.

**2) SUNY의 "스테이 니어, 고 파":** SUNY는 뉴욕주 전역에 위치한 30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기존의 "스테이 니어, 고 파(Stay Near, Go Far)"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기술, 헬스케어, 첨단 제조업 등 고성장 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뉴욕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 역량을 제공할 것입니다.

**3) 기업가 부트 캠프:**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는 기존의 자원을 기반으로 일련의 집중적인 워크숍과 부트 캠프를 개최하여 기업가와 중소기업 소유주에게 팬데믹 기간 중 및 이후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4) 산업 집중, 지역별 성과:** 노동부는 취업 준비자가 현재 지역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교육 받고 향후 경제 및 인력 개발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안된 기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경쟁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안서 접수(Request for Proposals) 계획을 발표하고 뉴욕주 10개 지역 경제 개발 협의체와 협력합니다.

뉴욕주 노동부의 **Roberta Reardon**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는 직장과 인력을 포함하여 우리 삶을 거의 모든 측면에서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뉴욕 주민들이 팬데믹에서 성공을 거두도록 대비를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신규 교육 기회는 이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는 데 필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의 커미셔너 대행 겸 사장, 최고경영자 임명자인 **Eric Gertle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력 교육은 오랫동안 ESD 미션의 핵심요소였으며, 이것은 뉴욕주의 기업이 더욱 강력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우리는 뉴욕의 최고 수준의 공립 대학, 워크샵 및

부트 캠프와 파트너십을 맺고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비롯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인재를 기업에 소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 대학교의 Jim Malatras** 학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팬데믹은 우리에게 경제를 촉진하고 다시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대담하고 창조적이며 과격적인 전략을 만들고 추진해야 한다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수요가 높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필요한 특정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에 위치한 기업과 연결하는 것은 경제 회복은 물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 주민이 자신은 물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새롭고 의미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재구상 인력 준비 기금(Reimagine Workforce Preparation Grant)은 이와 같이 중요한 노력을 크게 지원할 것입니다."

**CUNY의 Félix V. Matos Rodríguez** 명예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뉴욕시와 뉴욕주가 경제적 회복을 계속 추진하는 가운데, CUNY는 뉴욕 주민이 성장하고 있는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고품질 기술 향상 기회를 탐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자금 지원을 통해 CUNY는 디지털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및 웹 앱 개발과 같은 중요한 부분에서 수천 명의 뉴욕 주민의 수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José Serrano** 연방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의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기회에 접근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뉴욕주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교육 및 교육의 이용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뉴욕은 이번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단 8개 주 중 한 곳입니다. CARES 법이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의적절하게 도입된 조치 덕분에 지역 노동자, 기업가 및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사업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사태 기간 및 그 이후에 더욱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Joseph Morelle**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백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모든 부문의 사업체가 고전하면서 우리의 경제의 미래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으로부터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 인력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시행해야 합니다. 저는 CARES 법을 통해 중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근로자와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뉴욕이 더욱 안전하고 강력해질 수 있도록 헌신을 아끼지 않아주신 Cuomo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주가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2회 인력 개발 인식 주간(Workforce Development Awareness Week)을 진행하는 가운데 연방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주간에 뉴욕주는 비즈니스 및 산업 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지역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선하며, 지역 인력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높이고, 주 및 국가의 인력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에게 인력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을 계속하며 경제 재개를 추진하고 더욱 나은 방식의 회복을 시행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특히 더욱 중요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